

#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한양,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 빛고을·롯데건설, 형사 고발 예고...“한양 적법 시행사 사칭 등 도 넘어” 지난해 5월 토지 보상 마무리...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 절차 돌입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자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여러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주)한양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시공사 롯데건설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내부 주주 간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에만 집중해 왔으나, 최근 한양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와전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

다"며 "사업비 과다 계상 등을 주장하는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양측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조건 타당성 검증에서 2772세대 기준 3.3㎡당 2425만원이 도출됐지만,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판매·관리비 등을 줄여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현 빛고을 SPC 대표는 "개발사 주주 중 하나인 한양이 본인이 적법한 사업시

행자인 것처럼 사칭해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한양은 사업개시 이후 자본금 30억원 외에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보유 주식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설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6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1조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을 성사할 때도, 한양은 금융사에 수차례 '대출을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최근에는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에서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시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한양측의 방해에도 그동안 중

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어려운 금융환경을 뚫고 1조원의 자금 조달을 완료하고 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갔다"며 "광주시와 함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인 롯데건설과 빛고을 SPC는 한양이 주장하는 '대표 주간사' 지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업자측은 "한양이 외부에 밝힌 '제안·협상 컨소시엄 단계에 대표주간사'라는 것은 이미 소멸된 컨소시엄(민법상 조합)의 지위일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법상 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만이 법령상 사업 시행자"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측은 또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한양은 본인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의 주체인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기다리는 수분양자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빛고을 SPC 대표는 분양가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는 한양측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확정금액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추가이익이 발생하면 공원으로 재투자 하도록 협약돼 있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민간사업자 이익은 늘어나지 않으며, 미분양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판매비 등 리스크를 모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롯데건설(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오히려 적정 분양가 책정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눈치보지 말고 체조해요” 광주시 동구청은 직원을 대상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체조특파원 16시’를 운영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전남도, 수소 전문기업 육성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선정 시제품 제작·홍보 등 18억 지원

전남도가 수소산업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산업통상자원부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년간 국비 포함 모두 18억 원을 예비 수소 전문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테크·비즈 패키지 10개 기업, 엔트리패키지 2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테크 패키지를 통해 수소산업 초기 진입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비즈 패키지를 통해 성장단계에 있는 수소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디자인 개선 ▲제품 고급화 ▲홍보 등을 지원한다. 테크 패키지와 비즈 패키지는 지역 수소산

업 관련 지식재산권이나 매출실적을 보유한 예비 수소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6000만원 규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엔트리패키지를 통해 수소 산업 분야로의 업종 전환 또는 다변화를 꾀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기업당 2500만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차세대 예비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기회로 예비 수소 전문기업을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그린수소 에너지센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수소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수소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일반기업 또한 수소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수소 산업 육성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매년 추진 성과를 살피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보성서 해양복합센터 첫삽...해양레저관광 메카 기대

### 2025년까지 484억 사업비 투입 서핑·스킨스쿠버풀 등 조성

보성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킨스쿠버풀(41.5m), 다이빙 라운지, 인피니티풀, 유아풀, 생존수영장, 실내 서핑 시설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시설이 들어선다. 48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는 2025년 말 준공되는 이 시설이 울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특랑만 일대를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해양관광의 메카 도약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으로 추진한 보성 '해양복합센터'가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착공했다"고 밝

혔다.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은 늘어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사계절 즐기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성군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해양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다이빙, 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지원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기는 명소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보성군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소멸 대응기금 공모에서 선정된 울포프롭나드 조성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울포 해양관광단지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보성이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착공식에서 "보성군의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가 해양생태관광 1번지로 우뚝 서 글로벌 전남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오지마을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 전남도, 무인발급기 사용 교육도

전남도가 연말까지 교통이 불편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민원창구'는 간단한 생활 불편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사실관계와 현장 조사가 필요한 고충 민원은 사전컨설팅, 무료법률서비스 연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구례 문척면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부터 민원서류 발급과 여권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시스템 교육과 무인

발급기를 직접 활용해 주말, 공휴일, 늦은 밤에도 사용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사용 교육도 함께 한다.

또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안을 선정해 마을 이장과 주민이 협조해 자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협의체도 만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찾아가는 민원 창구를 통해 '교통 불편으로 고충을 겪는 오지마을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쉽게 해결하는 시책을 많이 만들어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식당 이용안내

깨끗하다는 믿음에 우리의 안심을 더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인방법

01.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알림>공고·공지>공지
02. 남구청 홈페이지  
www.namgu.gwangju.kr>생활정보>위생>위생정보
03. 배달어플, 네이버플레이스 업소정보